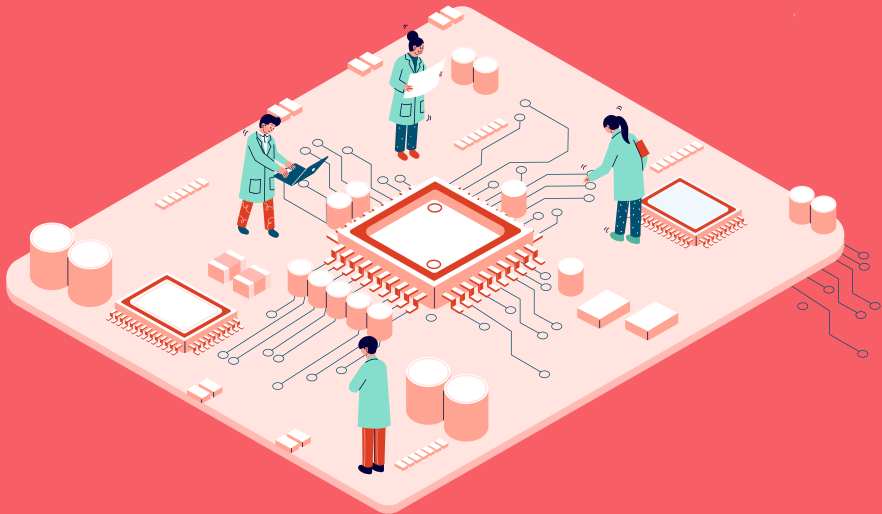


민관 역량 결집하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7월 21일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전략은 업계의 건의 및 애로사항을 기반으로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마련되었는데요.



이번 전략의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 **기업** 투자를 총력지원하고
둘, **민관이** 합심해 **인력**을 양성하며
셋, **시스템반도체** 선도 **기술**을 확보하고
넷,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지요

*소부장 : 소재·부품·장비 업종

좀 더 자세히 살펴볼까요?

하나, 기업투자 총력지원

340조 원 이상 기업투자 달성 (~2026년)

인프라 지원 및 규제특례 통한 정부 뒷받침

- 평택·용인 반도체단지의 전력·용수 등 필수 인프라 구축비용 국비 지원 검토
- 반도체 단지 용적률 최대 1.4배 상향 (350%→490%, 약 9,000명 고용 증가)
- 반도체 산단 조성 시 인허가 신속처리 의무화
- 산단 유치 이익 공유 위한 광역자치단체장의 특별조정교부금 활용 방안 추진

반도체 설비 및 R&D 투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검토

- 대기업과 중견기업의 설비투자 단일화 (6~10% → 8%~12%)
- 테스트 장비, IP 설계·검증기술 등 세제지원 대상 확대 검토

노동·환경 규제 개선

- 특별연장근로제(주 52시간→최대 64시간)를 전체 반도체 R&D로 확대
- 화관법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기준 규제 개선

들, 민관 합심 인력 양성

인력 15만+ α 명 공급 (~2031년)

규제혁신과 재정지원으로 대학의 반도체 인력양성 기능 강화

- 반도체 특성화대학원 신규 지정해 교수인건비, 기자재, R&D 집중 지원 (2023년~)
- 반도체 복수전공·부전공 2년 과정 '반도체 brain track' 30개교 운영 (2022년~)

산학협력 4대 인프라 구축 통한 인력양성

- 기업 주도 전문교육기관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2022년)
- 정부-기업 공동투자자 10년간 3,500억 원 R&D 자금 마련해 우수 석박사 인재 육성 [한국형 SRC]
- 반도체 기업 기증 유허·중고장비 활용한 현장형 교육 및 연구환경 마련 [한국형 IMEC]
- 소부장 계약학과 10개 설립해 정부·소자(대)·소부장(중소·중견) 공동 지원

반도체 기업의 인력양성 투자에 대한 지원 강화

- 장비 시가 10% 세액 감면
- 계약학과 운용비용의 인력개발비 투자세액 공제
- 소득세 50% 감면 혜택기간 연장 (현행 5년→10년)

셋, 시스템반도체 선도기술 확보

시장점유율 10% (~ 2030년, 현재 3%)

3대 차세대 시스템반도체 R&D 집중 지원

- 전력반도체 4,500억 원, 차량용 반도체 5,000억 원, AI 반도체 1.25조 원 지원

기술개발, 시제품제작, 해외 판로 등 예산 집중 지원

- ‘스타 팹리스*’ 30사 선정

* 팹리스 : 반도체 제조 공정 중 설계와 개발을 전문화한 회사

IP설계, 디자인하우스, 후공정 등 지원 확대

- 첨단 패키징 분야는 칩렛 등 핵심기술 개발, 인프라 구축, 인력양성 등 대규모 예타사업 추진

넷, 견고한 소부장 생태계 구축

자립화율 50% (~2030년, 현재 30%)

소부장 R&D, '추격형 국산화' 에서 '시장 선도형' 으로 전환

- 시장선도형 기술개발 비중을 내년부터 20%로 대폭 확대 (현재 9%)
- '소부장 핵심 전략기술'도 늘릴 예정

반도체 소부장 클러스터 구축

- 제2판교, 제3판교 테크노벨리, 용인 플랫폼시티

3,000억 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펀드 조성

- 내년부터 소부장 기업 혁신, 팹리스 M&A 집중 투자

그러면 이러한 정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비전

튼튼한 기업과 우수한 인재가 이끄는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

목표

글로벌 공급망 내 핵심 생산기지 위상 확립



반도체산업 혁신 선도국가 도약

산업통상자원부는 다음과 같은 **'Plus 전략'** 으로
효과를 극대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반도체
Plus 산업

배터리,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로봇,
바이오 등

SW 인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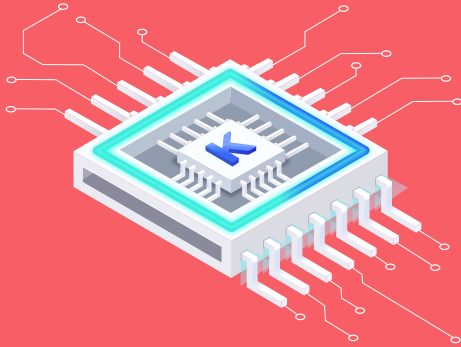
교육 혁신 및 산업계
협력 지속 추진

한편,
반도체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산학협력 인력양성 생태계 조성을 위해
‘반도체 산학협력 4대 인프라에 관한 MOU’ 를 체결했어요!

4대 인프라는 앞서 살펴본 바와 같지요.

- ① 반도체 아카데미 설립 협력
- ② 한국형 SRC 운영 협력
- ③ 한국형 IMEC 운영 협력
- ④ 소부장 계약학과 신설 협력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동진쎄미켐, PSK, FTS,
실리콘마이터스, 반도체협회가
이번 MOU에 참여했습니다!



산업현장은 계속해서 진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정책이 반도체산업 발전전략의 완결은 아니며,
앞으로 업계와 함께 지속 보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반도체는 미래산업을 이끌어갈 핵심기술!

민관 역량을 결집한 이번 전략이

‘반도체 초강국’으로 가는 초석이 되길 기대합니다!